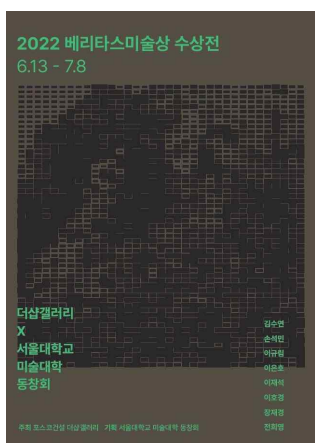


1 본회소식



2022 베리타스미술상 수상전 개최



본회(회장 권영걸/69응미)는 포스코건설 더샵갤러리와 함께 지난 6월 13일부터 오는 7월 8일까지 강남구 소재 더샵갤러리에서 '2022 베리타스미술상 수상전'을 개최한다. 베리타스미술상은 본회에서 유망한 젊은 작가들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지난해 12월 졸업전시에서 우수한 작품을 선보인 모교 졸업생 8인이 제1회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수상자 김수연(17공예전공), 손석민(17디자인), 이규림(15디자인), 이은호(15동양), 이재석(15조소), 이호경(17영상매체전공), 장재경(16서양), 전희영(17공예전공) 8인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개막일 오후 5시에 진행된 오프닝 행사에는 본회 권영걸 회장과 유인수 명예회장, 정옥란·김소선 고문, 나성숙·변영혜·채혜선 부회장, 이은숙 이사와 심상용 서울대미술관 관장, 김성희 모교 학장, 조정란 누크갤러리 대표, 김종근 미술평론가, 배기열 문화컨텐츠진흥원 대표, 이대만 서울예고 이사 겸 (주)참빛산업 대표, 서길현 미술평론가, 최혜원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김희영 동양화가 등이 참석하여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작품을 함께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영걸 회장은 오프닝 축사에서 "동문들의 작품에는 초대 장발 학장님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아카데미적 전통이

있습니다. 베리타스상을 수상한 8명의 동문 작가들이 앞으로 더욱 더 정진하여 인문학적 사유가 깊이 베어있는 훌륭한 작품을 창작하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이두나 더샵갤러리 관장은 "더샵갤러리는 포스코건설의 신기술과 아파트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 뿐 아니라 도심속의 문화공간을 표방하는 공간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개관시기에 코로나19가 발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다 처음으로 전시회를 열게 되어 매우 뜻깊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열린 공간으로서 다양한 전시를 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본회 소식

2022년도 정기총회 개최

본회는 지난 6월 14일 '2022년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등 현 상황을 고려해 회장단회의로 대체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도 사업 및 회계 결산안, 2022년도 사업계획안, 회칙개정안이 인준되었다. 개정된 회칙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교 전임교원 회원영입

본회는 회칙개정을 통해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술 관련 학과의 전·현직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회원으로 영입하기로 하고 특별회원의 자격을 부여했다. 특별회원은 의결권, 선거권을 가지게되며 회원으로서 의무와 책임도 지니게 된다. 이번 회칙개정으로 모교 장발(재직1946-61) 초대학장을 비롯해 김종영(재직1948-80)·노수현(재직1949-62)·박갑성(재직1949-680)·유경채(재직1961-86)·이순석(재직1952-미상)·정영목(재직1993-2019) 등 전직교수와, 윤주현(재직2002-현)·장성연(재직2018-현)·최석원(재직2022-현)·한정용(재직2015-현) 등 현직교수가 회원으로 인정된다.

임원임기 3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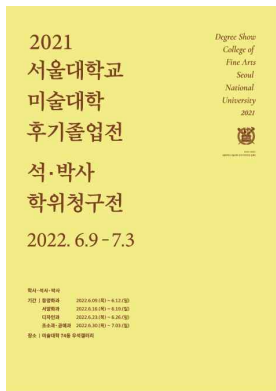
또한 본회 회장이 겸직하는 본회 산하 비영리법인(에스아트플랫폼) 이사장의 임기(3년)와의 차이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의 2년의 임기로는 실행하기 어려웠던 지속사업 추진을 위해 임원의 임기를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했다.

2022년도 에스아트플랫폼 이사회 개최

본회는 지난 6월 22일 오후 3시 에스아트플랫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는 코로나19 등 현재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줌(ZOOM)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1년도 사업 및 회계보고, 감사보고, 2022년도 사업계획을 다룬 뒤 기타안건에 대해 토의했다.

모교 소식

2022 후기 졸업전과 학위청구전 안내



서울대학교 미술대학(학장 김성학)은 '2021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후기졸업전과 석·박사 학위청구전'을 6월 9일부터 7월 3일까지 모교 우석갤러리와 50, 51동 건물에서 개최했다. 본 전시는 8월 졸업을 앞두고 있는 모교 학부 및 석·박사 과정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이 깃든 작품을 한자리에 모아 공개하는 뜻깊은 행사이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오프닝 없이 진행됐으며, 전시일정은 50·51동에서 동양화와 6월 9-12일, 우석갤러리에서 서양화와 6월 16-19일, 디자인과 6월 23-26일, 조소과와 공예과 6월 30일-7월 3일이다. 전시실 내부 음료 반입은 불가능하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관람해야 한다.

교육포럼 외부 초청 1차 간담회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육포럼'은 지난 5월 31일 서울대 교육학과 신정철 교수를 초청하여 대학 교육의 미래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나라별 대학 교육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재 체제를 갖추게 되었는지 살펴보았고, 대학 교육에서의 연구기능과 교육 기능이 어떻게 하면 상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의 미래 교육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육포럼'은 2019년도부터 미술대학의 교육철학 및 교육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해 수립된 된 논의의 장이다. 모교 각 학과 교수(김성희 학장, 권대훈 부학장, 김경선·김민애·김형관·김형숙·박영목·허보윤 교수)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교육포럼은 다양한 논의를 통해 미술대학 교육을 점검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내부 간담회, 공개 특강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회장동정

대통령실새이름위원장에 위촉



본회 권영걸(69응미) 회장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명칭을 심의·선정하는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지난 5월 30일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3만 건의 응모작 중 5건을 선정했으나, 6월 14일 최종 회의 결과 과반을 득표한 명칭이 없었고 각각의 명칭에 대한 비판 여론 등을 감안, 대통령실의 새 명칭을 권고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과 같이 '용산 대통령실'을 기존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결론을 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최종 선정안이 없기 때문에 대국민 명칭 공모 결과 또한 최우수상을 선정하지 않았다. 대신 제안순서와 의미를 고려해 우수상(이태원로22) 1건, 장려상(국민청사, 국민의집, 민음청사) 3건을 선정해 수상하기로 정했다. 권영걸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동안 대통령집무실의 새 이름과 관련하여 공모와 선호도 조사에 참여하신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두르지 않고 대통령실이 국민과 소통을 넓혀가면서 자연스럽게 합당한 이름이 도출되고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디자인그룹과 산학협력 체결



디자인학부(학부장 김경선) BK21 '사회적 감수성을 실천하는 디자인 리더 양성 사업단'은 지난 6월 22일 타이포 브랜딩 전문기업 윤디자인그룹과 디자인 리더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윤디자인그룹의 서체(폰트) 프리존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해당 캠페인은 윤디자인그룹이 보유한 서체를 학생 및 교육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무상 지원해 안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역량 있는 크리에이터의 성장 발판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윤디자인그룹은 서체 전종인 547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윤멤버십 크리에이터 상품을 모교 학부와 대학원에 무상으로 지원한다.

작가특강 '포스트 디지털: 님은 꿀과 다른 꿀'



서양화과(학과장 임자혁)는 초청작가 유상미(88서양) 동문의 특강 '포스트 디지털: 님은 꿀과 다른 꿀'을 지난 6월 16일 오후 4시 예술복합연구동 74동 오디토리엄에서 주최했다. 유동문은 모교 서양화과에서 학사를, 미국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에서 판화전공 석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텍사스 텍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유동문은 Pyramid Atlantic Art Center의 Denbo 펠로우쉽, AHL재단의 최월희 기념상을 수상하고 미국 American University Museum, the Museum of Printing History, 소마미술관 등의 미술기관에서 전시를 참여한 이력이 있다. 또한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은행과 스프링필드 아트 뮤지엄, 텍사스텍 뮤지엄 등에서 유동문의 작품을 소장 중이다. 유동문의 작품은 주로 원형적인 집의 형상에 대한 것으로, 판화, 레이저컷과 이들의 3차원적인 변형을 응용하여 제작되었다. 이번 특강은 작가 본인의 작품을 통해 디지털 이후의 판화 기법으로 사회문화적 스테레오타입을 다루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QS 세계대학평가 29위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가 영국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지난 6월 9일 발표한 '2023 QS 세계대학평가'에서 29위에 올랐다. 지난해 36위에서 7계단 뛰어오른 결과다. 국내 대학이 QS 세계대학평가에서 30위 안에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QS는 올해 총 1,418개 세계 대학에 대해 △학계 평판도(40%) △졸업생 평판도(10%) △교원당 논문 피인용 수(20%) △교원당 학생수(20%) △외국인 교원 비율(5%) △외국인 학생 비율(5%) 등 지표를 토대로 순위를 매겼다. 올해 새로운 지표로 △국제 연구 네트워크 △고용 성과가 추가됐지만,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모교는 올해 총점 82.2점을 받아 세계 29위를 기록했다. 2015년 31위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모교는 최근 10년간 세계 35~37위 사이에 머물렀다. 모교는 매해 학계 평판도와 졸업생 평판도에서 강세를 보였는데, 가중치가 높은 항목에서 두루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이 이번 순위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학계 평판도는 지난해 세계 24위에서 올해 19위, 전 세계 기업 인사 담당자에게 '채용하고 싶은 졸업생의 대학'을 조사해 산출하는 졸업생 평판도는 27위에서 21위로 크게 올랐다. 교원당 학생 수도 117위에서 100위로 상승했다. 다만 교원당 논문 피인용 수는 119위에서 147위로 내려갔다. 세계대학 전체에선 MIT가 11년 연속 1위였고, 케임브리지대와 스탠퍼드대가 뒤를 이었다. 아시아권 대학에선 싱가포르국립대(11위)가 가장 높았고, 모교는 7번째였다.

THE 어워즈아시아 'Workplace of the year' 수상



서울대가 대학 혁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SNU 주니어보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THE Awards Asia 2022'의 'Workplace of the Year' 부문 수상기관에 선정되었다.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THE(Times Higher Education)는 2019년부터

매년 아시아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운영 관련 10개 부문별 최우수 대학에 상패를 수여하고 있다. 올해 'THE Awards Asia'에는 아시아 22개국(500여 건)에서 참여하였고, 지난 3월 말 총 80건의 수상 후보가 선정되었다. 'Workplace of the Year' 부문에서는 대학 직원 친화적 업무환경 및 직장문화 등을 조성하는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대학이 선정된다. 서울대 20~30대 직원들로 구성된 SNU 주니어보드는 다양한 대학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직원 간 소통 활성화와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스누워크



서울대학교 스포츠진흥원이 관악캠퍼스 걷기 지도 '스누워크(SNU-Walk)'를 준비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마비됐던 지난 2021년, 스포츠진흥원은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운동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스누워크 사업을 준비했다. 스누워크는 캠퍼스 내에 교내 구성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걷기 좋은 길을 분류하고 실외 체육활동인 '야외 걷기 운동'을 장려한다. 스포츠진흥원은 분류한 길을 토대로 '스누워크 지도'를 제작해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했다. 스누워크 지도는 교내 31개의 서울대 산책코스인 '스누로(SNU-Ro)'로 구성됐다. 스포츠진흥원 직원들은 각 둘레길을 직접 걸어보며 특징을 파악하고 31개의 코스를 전체 거리, 소요시간, 소모열량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나누었다. ▲교내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스누모두로(S) 11개 코스 ▲사잇길을 누빌 수 있는 스누사이로(N) 7개 코스 ▲작은 순환길로 구성된 스누하나로(U) 13개가 코스가 그것이다. 각 명칭은 지난해 11월 둘레길 네이밍 공모전을 통해 선정되었다. 지도에는 교내 명소와 스포츠시설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봄축제 성공적으로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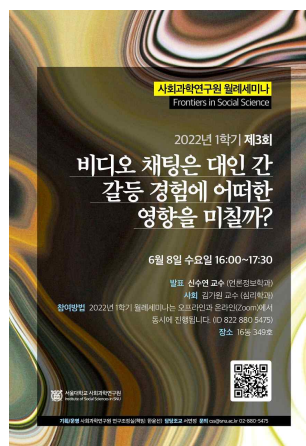
중간고사를 치르고 지친 학생들을 위해 지난 6월 총학생회 산하 '축제하는 사람들'과 각 단과대 축제준비위원회가 봄축제를 준비했다. 이번 축제는 학생회 소속 준비위원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부스를 대여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로 의미를 더했다. 캐리커처 부스를 운영한 박은빈(21디자인) 학생은 "그동안 만날 기회가 적었던 과 동기들과 축제 준비를 하며 친밀감을 쌓을 수 있었다"라며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과 대화하며 그림 관련된 영감을 얻기도 해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올해 축제에는 예년과 다른 특별한 콘텐츠들도 많았는데, 미션을 수행하며 통과해야 하는 '귀신의 잡과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 해당 공간을 빠져나와야 하는 '방탈출'이 특히 인기를 끌었다. 이틀간 텐트 대여를 통해 버들골의 저녁을 낭만적으로 즐길 수 있었던 '초여름 밤의 캠핑'은 1분 만에 신청이 마감됐다. 보컬, 밴드, 댄스 등이 버스킹과 경연의 형태로 진행됐으며, 그중 풍물공연과 응원단의 축하공연, 교내 댄스동아리인 'H.I.S'와 '222Hz'의 공연 등이 큰 관심을 받았다. 지난 6월 12일 열렸던 폐막제 공연에는 가수 기리보이가 참석해 밤 10시가 넘었음에도 3천여 명의 인원이 몰려 모처럼의 공연을 보는 열기로 뜨거웠다.

'관장과의 대화' 2년만에 재개



'관장과의 대화' 행사가 지난 5월 11일 관악학생생활관 920동 아고리움 사랑채에서 열렸다. 관악학생생활관 자치운영위원회에서 기획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단절됐던 입주생과 생활관 간 소통 관계를 개선하고 입주생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2년 만에 재개된 이날 행사에는 관악학생생활관 관장 및 부관장, 행정실장, 조교, 대학원생활관 운영사 관계자와 입주생 22명, 자치운영위원회 부원이 참석해 간식, 보드게임과 함께 편안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본 대담에 앞서 자치운영위원회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수합한 68개 의제를 토대로 행사 당일 다룬 9개의 핵심 의제를 선정했다.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 증설, 보수, 기타 의견도 생활관 측에 전달됐다.

사회과학연구원 월례세미나



'비디오 채팅은 대인 간 갈등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를 주제로 한 월례세미나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김가원 교수와 언론정보학과 신수연 교수 주도로 지난 6월 8일 사회과학동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ZOOM)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세미나에서 두 교수는 최근 코로나19와 함께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급증하고 특히 Zoom, FaceTime 등의 비디오 채팅 프로그램들은 대면 커뮤니케이션의 대체재로서 각광받으며 생기는 사회문제를 주목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이후 기존에는 직접 만나서 갈등을 해결했던 어려운 사회적인 이슈들을 화상통화와 같은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상에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들도 사회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사용의 변화는 대인 간 갈등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비디오 채팅 상에서 대인 간 갈등을 경험할 때 사람들의 대화 해결 만족도, 갈등 대화 상대방에 대한 평가, 흥분도 등이 과연 대면 대화와 비교하여 달라지는지를 테스트한 실험 연구를 소개하였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는 실제 대화를 할 때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것과 달리 Zoom과 같은 비디오채팅에서 자신의 얼굴을 카메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존 대면 대화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비디오 채팅 상에서는 주어지는 새로운 경험도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졌다.

서울대총동창회 소식



총학생회와 간담회

총동창회 김종섭(66사회사업) 회장이 지난 5월 13일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파인룸에서 김지은(조선해양공학 4년) 총학생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총동창회와 학생회의 협력 방안을 격의 없이 나눴다. 이날 총동창회에서 이경형 상임 부회장, 이승무 사무총장, 송우엽 사무차장, 총학생회에서 전현철(농경제사회 4년) 부회장, 조재현(자유전공 3년) 중앙집행위원장, 서울대 김영오(85토목공학) 학생처장이 배석했다. 공감대 형성으로 시작한 김종섭 회장과 김지은 회장의 대화는 곧 서로의 현안과 활동 구상으로 이어졌다. 김종섭 회장은 먼저 재학생들이 동문 자녀에게 일종의 멘토링을 해주고, 참여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이어 김지은 회장과 학생회 측이 동문 선배들의 재학생 진로 강연을 제안하자, 김종섭 회장은 “총학생회에서 모시고 싶은 분들을 알려달라. 분기에 한 번씩 모시고 선배들과 대화하는 기회를 만들어도 좋겠다”고 화답했다. 총동창회와 단과대 동창회 간 협력을 강조해온 김종섭 회장은 총학생회 또한 단과대 학생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SNU아트페어

총동창회와 본회가 주최하고 본회 산하 공익법인 에스아트플랫폼이 주관하는 ‘서울미술니움-2022 SNU아트페어’가 지난 5월 13~23일 서울 마포구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에서 개최됐다. 첫날 오후 4시 열린 개막식에는 본회 권영걸 회장을 비롯한 동문 40여 명과 총동창회 김종섭 회장, 이경형 상임 부회장, 이승무 사무총장, 송우엽 사무차장이 참석했다. 권영걸 회장은 개회사에서 “미대동창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문화예술계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2년여 동안에도 하던 사업을 연기하거나 취소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했다”며 빌라다르 전 개최, ‘서울대 미술인’ 발간 등 그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3500여 명의 동문 주소를 만들었다”며 “그 덕분에 이제는 뭐든 마음만 먹으면 쉽게 모일 수 있게 됐고, 그 힘으로 작가로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자 이번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작품 판매수익금은 장학금 등 공익에 쓰인다. 권회장은 또 미대 동문 최초로 관악대상을 수상한 김인중(59회화) 신부를 소개하며 “미술대학의 경사”라고 치켜세웠다. 김인중 동문은 이번 전시회 작품 6점을 출품했다. 김종섭 회장은 축사에서 “초등학교 동창이자 대학 동창인 황창배(회화70졸) 작가가 먼저 세상을 떠나 섭섭했는데, 유인수(66회화) 전 미대동창회장과 교류하면서 그림도 보고 작품도 몇 점 샀다”며 “미대동창회가 이번 전시회뿐 아니라 미술아카데미도 총동창회와 함께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러 행사를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엔 55명의 작가가 140여 점의 작품을 걸었으며, 작품 옆에 작품가를 표시해 그 자리에서 바로 구입이 가능했다.



총동창회 부회장 미대동문 8명

지난 4월 출범한 제29대 총동창회에 미대동문 부회장은 지난 제28대의 6명보다 2명이 증가해 총 8명이다. 당연직부회장으로 본회 권영걸(69응미) 회장, 상임부회장으로 김정(70응미/전 국회의원) · 김병중(74회화/모교 명예교수) 동문, 부회장으로는 정옥란(62응미/단국대 명예교수) · 유인수(66회화/상명대 명예교수) · 김성천(82응미/시디알어소시에이츠 대표) · 광병두(84산디/지엘어소시에이츠 대표) · 황혜선(88조소/설치미술가) 동문 등이다. 과거에 비해 많은 미대동문들이 총동창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앞으로 총동창회에서 많은 활약을 함으로써 미대동문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창힐링타운 조성추진



총동창회는 올해 말 시니어타운, 노령층 전담 병원, 기숙형 국제학교 등으로 이뤄진 ‘평창 힐링타운’ 조감도 발표를 목표로 최근 담당자를 인선하고 해외 대학 사례를 연구하는 등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평창 힐링타운 계획은 김종섭 회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정채된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일대를 활성화시켜 지역 사회 일자리 창출은 물론 휴양 명소로 만들자는 의미가 있다. 추진단장을 맡은 노인학 전문가인 최성재 서울대 명예교수는 “서울대 평창캠퍼스 내 바이오회사들과 협력할 부분도 많을 것 같다”며 “평창 힐링타운이 우리나라 스마트 건강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최준원 부원장은 “이 곳에 그린바이오단지를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총동창회에서 힐링타운을 조성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재활의학 전문 병원 등까지 유치해 평창캠퍼스 연구기관들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가족음악회 개최



총동창회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동문과 스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지난 5월 27일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서울대학교 가족음악회’를 열었다. 이날 동문 및 가족과 모교 교수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휘자 금난새(66작곡) 동문과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동문·재학생 협연자들은 완벽한 호흡을 보여줬다. 금동문과 오케스트라가 첫 곡 ‘죽음의 무도’를 마친 뒤에는 하모니시스트 이윤석(작곡 17졸) 동문, 바이올리니스트 김혜지(09기악) 동문, 최근 국제 콩쿠르에서 3위에 입상한 피아니스트 문성우(기악 4년) 재학생, 첼리스트 성예나(기악 2년) 재학생 등 젊은 솔리스트들의 무대가 이어졌다. 인터미션 없는 2시간 공연이었지만 관객들은 피로한 기색 없이 지휘자와 연주자들에게 찬사를 보냈다.

회비납부안내

연회비	회원	3만원(평생회비30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찬조금		상시 환영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회비납부시 성명 · 학번 · 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비입금내역(5.27-6.28)-가나다순

- 부회장 회비 김항록(80조소) 최진희(83서양)
- 이 사 회비 서효숙(81회화)
- 일 반 회비 강신자(76조소) 윤옥진(64조소) 이성경(08동양) 차명희(66회화)
- 평 생 회비 조여주(77회화)
- 광고 후원금 D-pack 16,6000원

작품기증

이영애(66응미) 동문께서 동창회 사업을 위해 본인의 작품 2점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이동문은 전 중앙대학교 미술대학 겸임교수로, 2003년 크라코프 국제판화 트리엔날레 총독상과 2000년 크라코프 국제판화 트리엔날레 심사위원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소식지를 휴대폰으로 보세요~

본회는 매월 온라인소식지 E-NEWS를 발간해 메일로 발송합니다. 소식지를 통해 전시, 행사나 경조사 등을 알리고 싶으신 동문께서는 동창회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회는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해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자 하오니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동문께서도 동창회메일(snuarta@naver.com)로 성명(학번.학과), 사업체 명칭과 소개글, 이미지,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회SNS로 소식을 전하세요~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밴드 · 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곳에서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밴드에는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알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시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D예:김홍도(98동양)

축하기 · 근조기 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555-1946

광고협찬안내

- 회지광고를 통해 기업 또는 단체, 개인의 홍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해 주시는 광고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이뉴스 발간 및 본회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 회 지 명 : 서울미대동창회 E-NEWS
 - 발행방식 : 이메일 발송, SNS업로드(인스타그램, 밴드)
 - 광고마감 : 매월 20일
 - 발 행 일 : 매월 말일
 - 판 형 : A3(국배배판) 297x420mm
 - 연락처 및 이메일 : 02-555-1946, snuarta@naver.com

규격	광고료
전면	50만원
1/2면	30만원
1/3면	20만원
1/5면	10만원

국내최초 품격 작품포장 D-Pack의 시대가 열렸다—

- ‘10kg 이상 중량작품 포장 가능’
- ‘박스는 100호까지 자유로이 맞춤 제작’

작품의 운송과 보관을 위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박스 D-Pack이 출시됐다. 2019 글로벌아트페어싱가폴(대회장 권영걸)의 국내외 전체 작품운송을 책임졌던 이한호 대청해운 대표가 삼십여년의 대형 글로벌 운송경험을 바탕으로 작품포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롭게 개발한 제품이다. D-Pack은 플라스틱 소재의 포장박스로, 그동안 사용되어왔던 종이박스를 대체할 품격과 안전성, 내구성을 갖추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과 맞춤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며 100호 이상의 대형작품도 가능하다.

연락처 : 02-783-7080

BOX 가격표							
호	가로	세로					
		F(인물)	가격	P(풍경)	가격	M(해경)	가격
1	22.7	15.8	5,000	14.0	4,500	12.0	4,000
2	25.8	17.9	6,000	16.0	5,500	14.0	5,000
3	27.3	22.0	7,000	10.0	6,500	16.0	6,000
4	33.3	24.2	8,000	21.2	7,500	19.0	7,000
6	40.9	31.8	9,000	27.3	8,500	24.2	8,000
8	45.5	37.9	10,000	33.4	9,000	27.3	8,500
10	53.0	45.5	12,000	40.9	11,000	33.4	10,000
12	60.6	50.0	14,000	145.5	13,000	40.9	12,000
15	65.1	53.0	16,000	50.0	15,000	45.5	14,000
20	72.7	60.6	18,000	53.0	17,000	50.0	16,000
25	80.3	65.1	20,000	60.6	19,000	53.0	18,000
30	90.9	72.7	25,000	65.1	23,000	60.6	20,000
40	100.0	80.3	30,000	72.7	28,000	65.1	25,000
50	116.7	91.0	35,000	80.3	33,000	72.7	30,000
60	140.0	97.0	40,000	89.4	38,000	80.3	35,000
80	145.5	112.1	45,000	97.0	40,000	89.4	38,000
100	162.1	130.3	50,000	112.1	45,000	97.0	40,000



동문 미술관 탐방

“내용은 풍부하게- 형태는 단순하게-”

한국 추상조각의 선구자, 우성 김종영의 미술관

가파른 언덕 위에 살포시 자리잡은 추상적 건축 디자인

서울 속 숨은 보석 같은 힐링의 미술관, 김종영미술관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는 20년간 변함없이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터줏대감 미술관이 있다. 바로 조각가 김종영의 예술철학을 연구하고 그의 작품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전시를 하고 있는 김종영미술관이다. 이 곳은 2002년에 개관했으니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2002년 12월 15일, 김종영미술관은 한국추상조각의 선구자인 조각가 김종영(1915~1982)의 20주기를 기념하여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문을 열었다. 그로부터 약 8년 뒤, 2010년 12월 15일에 김종영미술관의 신관(별칭:사미루(四美樓))를 증축하여, 미술관의 본관(별칭:불각재(不刻齋))과 비대칭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미술관을 완성했다. 김종영미술관은 과감하게도 기초 부지의 가파른 언덕을 깎아내지 않고, 소나무와 계곡 등 본래 이 곳에 있던 자연적 요소를



그의 작품철학은 한마디로 '불각'이다. 즉, 화려한 "기교" 대신 단순하면서도 물질의 특성 자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불각(不刻)적 표현을 선택함으로써, 소박하지만 세련되고 그러면서도 깊은 뜻과 이치를 담고 있다는 점이 김종영 작품의 주된 특징이다. 이는 '불각(不刻)의 미(美)'라는 미학으로 남아 20세기 한국미술사에 길이 남을 예술론이 되었다. 김종영의 예술론 '불각'에 대해 알고 나면 평창동에 위치한 김종영미술관은 보다 더 그의 작품과 닮은 공간으로 느껴질 것이다. 본관에서부터 신관까지 유려하게 연결되는 건축의 구조는 평범한 화이트큐브의 미술전시장이라기 보다는 마치 김종영의 작품처럼 추상적으로 조각된 공간으로 느껴진다. 누구나 이 곳에서 추상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으며 차분하고 고요해진다.

2018년 김종영미술관을 방문했던 중국국가미술관장 우웨이산은 이 미술관엔 김종영의 영혼이 깃들어있다고 말하며 극찬했다. 그리고 그는 김종영 선생의 작품을 오랫동안 둘러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1950~1970년대 한국에 구상과 추상을 넘나들며 동양 정신을 서양 미술에 접목시킨 분이 있었나"며 "치바이스(중국의 피카소)처럼 서화, 그림, 조각을 모두 아우르는 작가"라고 존경심을 표했다. 그는 작품을 다 둘러본 후 "나무를 새기든, 돌을 조각하든 다 혼을 담았구나. 경지가 높고 생각이 오묘한 게 구름이랑 어깨를 겨눌 수 있구나. 모양이 생생하다"는 관람평을 남겼다. 이처럼 김종영미술관은 조각가 김종영의 예술혼과

그대로 유지하는 구조를 통해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형태를 갖춘 건물로 지어졌다. 본래 장소가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주변환경을 그대로 살리는 건축물을 구현하여, 조각가 김종영의 작품과 닮은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자연스러움을 향유하고 편안함을 가진 미술관으로 설립되었다.



그렇다면 조각가 김종영은 어떤 인물일까. 김종영(1915~1982)은 전통에 기반한 선비와 같은 태도와 의식으로 그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창조하였던 한국의 근현대 미술가이자 조각가다. 그는 1915년 경상남도 창원에서 태어나 휘문고보를 졸업, 동경미술학교에서 유학했고 모교 조소과 교수로 봉직하며 1968~72년에는 학장을 역임했다. 1953년 런던에서 개최된 '무명 정치수를 위한 모뉴먼트' 국제전에서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수상하였고, 주요 작품으로는 '전설'(1958), '새'(1950) 등이 있다. 무엇보다 모교 1세대 교수로서 1980년 정년퇴임까지 32년간 후학을 지도하며 우리나라 조각 예술 교육의 초석을 다지는데 이바지한 한국조각계의 큰 스승이다. 김종영은 서양에서 시작된 추상조각 형식에 태도와 정신을 다루는 동양적 개념을 접목하여 동서양을 넘나드는 독보적인 조각작품을 제작하였다. 주로 나무와 금속, 대리석을 재료로 하여 작품을 만들었고, 단순하지만 명쾌한 형태 감각을 갖춘 조각으로 자신만의 독자적인 예술론을 실현시킨다. 김종영은 영원불변할 미의 개념은 자연(自然)에 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자연의 질서를 미(美)로 구현해내는 작품을 제작하였다. 당시의 최신 미술 경향이었던 서양 추상조각을 수용하여 여기에 자연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자신의 예술철학을 접목시킨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조각계에 만연했던 '따라 만들기' 즉, 구상적이고 표현적인 작업방식에서 벗어나,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자신만의 완벽한 추상조각을 제작하게 된다. 이것은 한국조각미술 발전에 발판이 되었으며 당시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한국의 조각미술을 세계 속의 현대조각으로 도약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삶을 조망하고 그의 작품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곳이다. 미술관을 방문하는 모든 관람객들은 언제나 김종영 선생의 아름다운 작품을 관람할 수 있고, 계절에 맞게 변화하는 수려한 북한산의 자연경관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또한, 김종영은 해방 후 불모지와 다름없던 한국 미술계에서 추상조각을 일군 선각자임과 동시에 평생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교수로서 제자들을 길러내는 일에 헌신하였다. 따라서, 김종영미술관은 그가 남긴 뜻과 교육자로서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매년 한국 미술을 이끄는 또 이끌어 나갈 현대미술 작가들의 새로운 전시들을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김종영 선생의 차남 김익태(73조소) 동문 등 유족을 중심으로 하여 명예관장 최종태(54조소), 학예실장 박춘호(81조소), 학예연구사 오보영(06조소) 동문 등 김종영 선생을 존경하는 많은 모교 제자들이 이 곳에서 그의 유지를 선양하고 있다. 미술관의 설립취지와 운영방식을 통해 한 위대한 조각가의 삶과 혼을 이어가는 셈이니 참 유익한 일이다.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건축으로 서울의 상징인 북한산 자락에 깃든 김종영미술관은 삭막한 도심 속에서 추상예술의 무한한 가치를 느껴볼 수 있는 사색과 문화의 공간이자 서울의 명소라 할 수 있다. 지친 생활 속 위로와 위안이 필요할 때 방문하여 조각가 김종영의 예술론에 빠져보길 바란다. "내용은 풍부하게- 형태는 단순하게-" 라고 말했던 김종영의 작품이 분명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전해줄 수 있을 것이다.

■ 미술관 관람안내

관람시간 하절기(3-11월) 10:00-18:00 동절기(12-2월) 10:00-17:00(월요일 휴관)

주소 서울시 종로구 평창32길 30 (110-846) 문의 02.3217.6484

e-mail info@kimchongyung.com 홈페이지 www.kimchongyung.com

■ 찾아가는 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3번 출구 1711, 1020 버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 1711, 1020 버스

지하철 4호선 길음역 3번 출구 153 버스 평창동 롯데아파트정류장 하차

‘동음과 이음’전시, 제자 대담

일랑 이종상이 걸어온, 한국화의 시간을 돌아보다

이종상(59회화)



이종상 동문은 지난 5월 15일 동덕아트갤러리에서 열린 ‘한국화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 개최 전 제자들과 대담을 하였다. 이종문이 이끌어왔던 한국화의 자생성과 전통의 현대적 변용에 대한 창작관에 대

해 공감하고 이를 계속 이어가고자한 제자들이 만든 자리인 만큼, 세미나와 대담은 이종문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꾸러졌다. 이철주 교수의 이종문과의 처음 만난 인연을 시작으로 김선두, 김성희, 이승철 교수와의 공개 대담이 이어졌다. 이종문은 “근대기 우리 미술은 서구미술 중심의 동질화 속

에서 상대적으로 한국화의 정신적 또는 형태적 위상이 매우 위축됐다”라며 “지역적 한계라든지 또는 서양문화의 종속성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47명의 작가가 모여 한국화라는 큰 주제 안에서 자신이 가진 개성을 마음껏 발휘한 ‘동음과 이음’ 전시의 의의를 높게 사며, 작가로서의 다양한 창작관을 살려 나갈 수 있는 전시가 많이 개최되길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김성희 모교 학장은 한국 채색화 재료를 언급하며, 제자들에게 특별히 재료 기법을 교육한 뜻이 있었는지 물었다. 이에 이종문은 본디 미술이란, 단순히 그림만을 그리는 것이 아닌 모든 학문을 아우르는 ‘통섭의 예술’이라는 이야기로 답을 시작했다. “우리 화가들은 발상이 떠오르면 먼저 물건을 잡는 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을 알아야 한다. 또한 정신을 담아야하기 하므로 인문학 또한 공부해야 한다. 그런데, 미술 대학에서는 ‘미술’만을 가르치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회사후소(繪事後素)를 언급하며 “좋은 그림은 좋은 인품으로부터 시작된다. 좋은 그림과 좋은 인품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에 있어서 ‘미술’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통섭의 교육으로 철학을 잘 전달해주길 바란다”라고 이젠 스승이 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갤러리소연카페 김승희(65응미)



김승희 동문의 서울 권농동 갤러리소연카페는 2011년부터 서울 권농동에서 지금까지 전시공간이자 카페로서 자리를 지켜왔다. 김동문은 모교를 졸업하고 국민대학교에서 금속공예를 가르친 뒤 정년 이후의 작업실을 탐색하다 종묘의 돌담에 자리를 잡았다. 1층은 카페, 지하 1층은 작업실, 2층은 자택으로 구성된 작은 건물에 12년째 이어온 카페지만, 실상은 더 오래됐다. 김동문의 카페는 1994년 서울 구기동

에 열었던 ‘크래프트 하우스’를 모체로 한다. 김동문과 제자들의 장신구를 전시, 대중에게 알리는 창구 역할을 하던 장소에 관람객을 위한 서비스로 음료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 갤러리 카페의 시작이었다. 그것이 ‘갤러리’가 ‘카페’보다 앞서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동문이 금속공예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전

시공간과 프로그램에 더 무게를 두기 때문이다. 주문대 뒤로 돌아 들어가면 전시공간이 마련되어 반지, 팔찌, 목걸이, 머리핀, 브로치, 마스크 줄 등 작품을 구입 후 바로 착용할 수 있다. 통로 한쪽에 마련된 ‘이달의 작가’ 코너에서는 신진 공예가의 작품을 소개한다. 카페와 공방을 결합한 원데이클래스를 개설해 다과를 즐기며 나만의 장신구를 제작해 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하며, 새로 리모델링한 지하공간은 회의나 파티, 단체 영화 관람이 가능하도록 새롭게 꾸몄다. 김동문의 갤러리소연카페는 말 그대로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한다. 카페의 메뉴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김승희 동문은 일흔이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고 전통을 현대화한 고유의 먹거리를 연구하는 등 카페 메뉴에도 예술가다운 창의성을 녹여내었다. ‘소연(小然)’은 작은 힘들이 모여 큰일을 이룬다는 뜻으로 김동문의 장신구 브랜드이기도 하다. 그 이름에 걸맞게 김동문은 제자들과 함께 카페 및 금속공예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대 미대 여성작가 동문회 ‘한울화’와 사단법인 ‘더 투게더’의 해외지원 사업도 돕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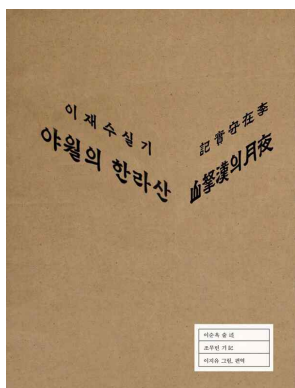
포스텍 ‘지성의 광장’ 최석원(모교재직 2022-현)



모교 동양학과 최석원 교수가 포스텍 문명시민교육원이 주최하는 ‘2022-1학기 지성의 광장’을 통해 미술사 속 대표적인 수집가를 조명했다. 지난 6월 2일부터 23일까지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총 6강에 걸쳐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문명시민교육원에서 여는 세 번째 미술사 강연이다. 100명 정원으로 진행되었으며 문명시민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지난 6월 3일까지 신청만 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이

번에는 ‘위대한 컬렉터의 시대’를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인문학 강연을 펼쳤다. 한국외대 이탈리아어과·세계문화예술경영학과 최병진 교수의 ‘메디치 컬렉션의 역사적 전개와 의미’ 강연에 이어 최석원 교수가 ‘오세창의 공부와 전형필의 수집’ 강연을 하였다. 또 그 외에도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우정아 교수의 ‘현대미술의 신전을 짓다:주세페 판자와 디아 미술재단’ 등의 강연 등이 진행되었다. 또,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박재연 교수 ‘인상파 화가의 유연장을 들춰보다: 카유보트 유증 사건의 전말’, 에이트 인스티튜트 박혜경 대표(미술품경매사)의 ‘세상을 움직인 컬렉터와 컬렉션’, 대구미술관 최은주 관장 ‘대구미술관으로의 기증 사례를 통해 본 이건희컬렉션의 성격과 의미’ 등 다채로운 강연이 시민들을 찾아갔다.

‘야월의 한라산’ 출간 이지유(02서양졸업)



이지유(02서양졸업) 동문이 121년 전 제주 신축항쟁을 이끈 청년 장두 ‘이재수’에 대해 쓴 ‘이재수 실기-야월의 한라산’을 현대적으로 가다듬어 출간했다. ‘이재수의 난’, ‘신축교안’으로도 불린 신축항쟁은 1901년 천주교 세력과 대한제국 황실 사이에서 착취 당한 제주도민들이 무기를 들고 봉기한 사건이다. ‘신축항쟁’ 당시 이재수와 함께 했던 민군의 입장에서 기록한 책이다. 출판사는 “이 책은 원본의 글에 최소한의 윤색을 해, 원본의 어감을 살리면서도 현대의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편역됐다. 주요 사건들에 관한 이지유 작가의 작품 이미지가 같이 배치돼 있다”면서

“당시 사람들의 언어와 세계관을 통해 보는 민란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소개했다. 이종문은 제주도를 기반으로 활동하며 제주도의 역사와 정체성을 탐구하는 작가다. 이종문은 지난해 10월 ‘이재수 실기’ 뿐만 아니라 신축항쟁 과정을 동생 이순옥의 시선에서 바라본 개인전 ‘새의 눈, 벌레의 눈-이재수 실기’를 가지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종문은 “이 책이 과거 이 땅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순옥은 기독교에 입교해 평생 오빠와 그 희생자에 대해 기도했다고 한다. 이종문이 편역한 이번 책은 투쟁과 항쟁의 역사로서 만의 ‘이재수의 난’이 아니라, 속죄와 용서의 서사로서의 ‘이재수의 난’이 그녀의 책과 삶을 통해 알려지기를 기원하는 목적으로 출간되었다. 이종문은 제주 출신으로 제주대와 모교(서양화·미학)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서양화, 런던예술대학에서 Fine Art를 전공했다.

정년퇴임 기념전: 열두 개의 질문

김춘수(77회화)



김춘수 동문의 정년퇴임 기념전 '열두 개의 질문'이 6월 23일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미술관에서 열린다. 1996년부터 모교 서양학과 교수로 재직한 김동문은 1957년 인천에서 태어나 모교와 동 대학원, 캘리포니아주립대 대학원에서 회화과를 졸업하였다. 기념전을 맞은 인터뷰에서 김동문은 1990년대에 작업에 대해 느꼈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한 것들, 이를테면 붓이 아닌 도구를 쓴 것에서부터 그의 대표작 울트라 마린에 이르기까지 그의 작품세계에 대한 여러 질문에 답한다. 김동문은 당시 느꼈던 답답함의 원인을 붓이 가진 반복적인 터치와 한계에서 찾았다. 김동문은 일반적인 예술가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작업을 하는 것과 달리 원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까지 표현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기에 구체적 표현이 가능한 붓 대신 휴지와 종이를 뭉쳐 물감을 찍는 등 다양한 표현방식을 연구하였다. 또한 김동문은 전시장을 가득 채운 울트라 마린(Ultra marine)에 대해 '바다 너머에'라는 의미 그대로 김동문이 그림에서 추구하는 유토피아에 대한 갈망과 연결된다고 답했다. 김동문은 그의 작품에 오직 울트라 마린 블루와 흰색 두 가지 물감만을 사용해왔다. 이처럼 '열두 개의 질문'은 선부른 해답 대신 끝없는 물음으로 회화의 진실함에 수렴하고자 하는 그의 겸허한 작가적 태도와 새로운 출발에 대한 의지가 담겨있는 전시이다. 본 전시는 김동문의



작품들을 통하여 삶에 대한 오마주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김동문은 36회의 개인전을 비롯하여 다양한 유수 국내외 단체전에 출품하였으며, 1993년 토탈미술대상을 수상하고 1996년 제23회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한국관 대표로 참가한 이력이 있다. 2003년 스페인 알칼라대학교 초청 연구, 2006년 대한민국 예술원 우수예술인에 선정되었고, 국립현대미술관, 리움미술관, 토탈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LA Artcore Center 등 국내외 각처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1990년대의 '수상한 혀' 시리즈 이후 2000년대의 '울트라-마린'에 이르기까지 현대미술의 중심에서 '회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화두를 제시하며 '현대-한국-회화'의 모색을 지속해온 김동문은 올 8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198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푸른 기운의 작업으로 예술의 근원적 문제에 천착해온 김동문의 작품세계를 총망라하는 이 전시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의 묘법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 깊이를 달성해왔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장이다. 전시 '열두 개의 질문'은 오는 7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월 휴무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정년퇴임 기념전: 산만의 궤적

윤동천(81회화)



윤동천 동문의 정년퇴임 기념전이 지난 6월 2일부터 19일까지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미술관에서 열렸다. 윤동문은 1993년부터 2022년까지 30년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 교수로 재직, 오는 8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산만(散漫)의 궤적'으로 지난 6월 2일 서울대미술관에서 개막한 퇴임전은 윤동문의 1970년대부터 2010년대를 아우르는 작품 세계를 조명한다. 그의 작업을 구성하는 핵심은 '일상'으로, 한국 근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시대정신을 관통한다. 김태서 서울

대미술관 학예연구사는 윤동문을 1990년대 한국 현대미술의 다원주의 경향을 대표하는 작가로 "예술의 일상화 일상의 예술화"를 기치로 한 일관된 작품세계를 전개해왔다고 말한다. 윤동문에게 작업의 연장으로서 교육과 교육을 통한 작가의 영역 확장이라는 명제는 그에게 수확한 많은 후배, 제자, 작가들에 의해 한국 미술교육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1980년대에 권위주의 정권과 이에 반발하는 민주화 학생운동의 충격을 겪은 그는 동시대 미술계의 '모더니즘 추상미술'과 '현실 참여적 민중미술'의 대립 사이에서 독자적인 표현양식을 탐색하였다. 그의 작업은 민중미술의 현실에 대한 비판과 변화에의 의지를 수용하는 동시에 텍스트와 이미지의 대비, 다양한 미술 양식에 대한 은유 및 대중매체를 전유하며 쉽고 유머



러스한 표현을 통해 일반 관객의 접근이 용이한 새로운 풍자미술의 영역을 개척하였다. 개념미술을 기반으로 한 설치와 회화, 판화, 사진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는 윤동문의 작품세계는 한국 현대미술이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나가는 해외여행 자유화 시대의 새로운 미술이 등장함을 예시하였다. 하지만 그는 그 속에서 한국의 현대미술이 지속해서 발굴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고유한 한국적 특성에 대한 연구 또한 이어가며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한국 현대미술의 탈식민주의적 성향을 동시에 드러낸다. 더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무작위적인 작품 제작과 비전문가의 개입을 통한 작가주의 신화의 해체, 전시장을 작품 감상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관객들이 일상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치환하는 작업을 통해 윤동문은 "과연 예술이란 무엇이며 예술이 현실의 삶과 유리되어 기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였다. 윤동문은 예술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며 삶 자체가 가장 위대한 예술임을 주장함과 동시에 예술가와 비예술가의 경계가 사라지는 '민주미술'을 추구한 이상주의자이기도 했다. 이번 회고전은 1970년대부터 2010년대로 이어지는 윤동문의 예술세계가 40여 년의 시간 속에서 시대가 요구한 소명을 어떻게 규정하였고 작품을 통하여 어떻게 이에 반응하여 왔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다.

송영수: 영원한 인간 송영수(50조소/1930-1970)



송영수 동문이 지난 5월 24일부터 오는 9월12일까지 포항시립미술관에서 초대전을 갖는다. '한국 추상철 용접조각의 선구자 송영수 동문의 조망전, 송영수-영원한 인간'은 한국 현대조각사에서 철 용접조각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자신만의 조형세계를 구축한 1세대 추상조각가인 송동문을 기리기 위한 전시이다. 41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송영수, 그가 살아낸 세월보다 훨씬 많은 날들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아름다운 영혼'이 깃든 그의 작품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한다. 송동문은 1957년 최연소 국전 추천작가로 등극하면서 미술계에 이름을 알렸다. 그 당시는 한국전쟁 후, 폐허가 된 도시와 열악한 경제 상황에서 전후 복구와 재건으로 젊은 작가들은 석고조각도 구하기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이때 전쟁의 상흔처럼 길거리에 산재한 고철과 드럼통은 자연스레 작가들의 눈에 들었고, 그것을 재료 삼아 철조 작업을 시작했다. 송동문 역시

시대의 아픔과 변화를 목도하며 내면에서 타오르는 작가적 의지를 철 용접 조각으로 끌어냈다. 그의 예술 활동은 20년에 불과하다. 하지만 마치 예정이라도 한 듯이 송동문은 치열한 자기 고뇌와 조형적 탐구를 끝없이 이어가며 불멸의 작품들을 남겼다. 특히 1960년대 그가 발표한 작품들은 전후 시대의 아픔과 희망을 품어내며, 추상 용접 조각의 지평을 열었다. 더 불어 조각의 공간 개념을 국내에 알리며 석고, 나무, 동판, 테라코타 등 다양한 재료와 방식을 거침없이 활용한 작품들도 발표했다. 기념 조형물 제작에도 뛰어난 업적을 남긴 송동문은 창작에 대한 열정으로 표현 영역을 확장하면서 자신의 조형 언어에 적합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독자적인 예술의 길을 찾았던 창조자이자 개척자였다. '송영수: 영원한 인간'은 송동문의 생애를 따라 그 예술적 자취를 살피며 작품을 감상하도록 마련한 전시다. 그가 조각을 시작한 모교 재학시절 작품부터 1970년 4월 1일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제작했던 주요 작품 40여 점과 그가 항상 손에서 놓지 않았던 스케치북에 남긴 드로잉 등들을 총망라하여 소개한다. 또한 그의 일대기와 작가 노트를 바탕으로 조형 형식의 연구내용을 시기별로 주제를 나눠 전시를 구성했다.

김한기 뉴욕시대와 한용진 문미애전

한용진(56조소/1934-2019), 문미애(56회화/1937-2004)

한용진 동문과 문미애 동문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김한기 뉴욕시대와 한용진 문미애전'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현대화랑에서 지난 6월 2일부터 30일까지 열렸다. 이번 전시는 1960-70년대 뉴욕이라는 이국땅에서 예술가로서 고독과 외로움을 이겨내고 이를 예술로 승화할 수 있도록 서로 큰 힘이 되어 준 김한기 작가와 한용진, 문미애 동문의 우의를 기념하기 위한 전시였다. 한동문과 문동문은 모교 선후배로 만나 1962년 부부의 연을 맺었다. 한동문과 김한기 작가의 인연은 한동문이 경기고 3학년이었을 때 홍익대학교가 주최한 '국제학생미술대회'에서 입상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김한기 작가가 한동문에게 상을 수여했다. 이후 두 사람은 63년 제7회 상파울루비엔날레에 나란히 참여하면서 연을 이어갔다. 김한기 작가와 한동문, 문동문 부부는 67년부터 뉴욕에서 동고동락하며 영향을 주고받았다. 이번 전시는 두 동문과 김한기 작가, 세 작가의 작품을 각각 15점씩 총 45점을 소개했다. 한동문의 작품은 돌의 재질과 형태를 존중하며 제작한 1세대 한국 추상조각 작품이, 문동문의 작품은 70-90년대 회화작품이 소개되었다. 45점의 작품은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져 전시장 1층은 한용진·문미애 동문의 작품을, 2층은 김한기 작가의 뉴욕시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월전우화 : 월전의 영모화 장우성(모교재직 1946-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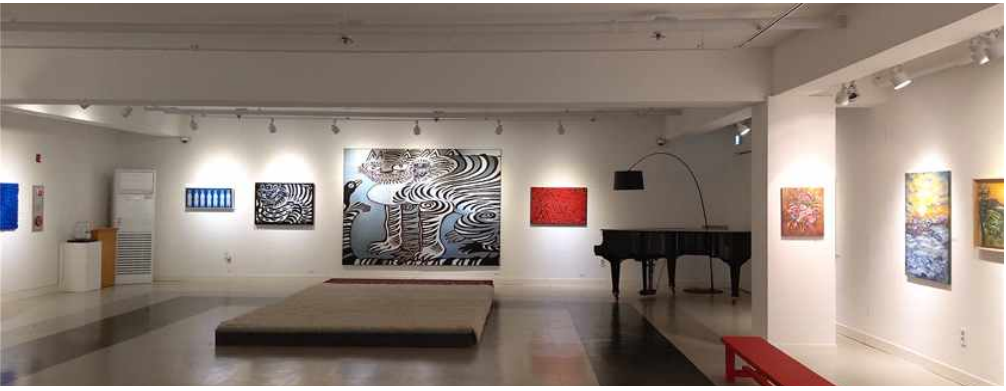
월전(月田) 장우성(1912-2005) 교수의 탄생 11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 '월전우화: 월전의 영모화전'이 1부와 2부로 나뉘어 개최되었다. 1부 전시가 4월 7일부터 시작해 7월 3일까지 이천시립월전미술관에서, 2부 전시가 서울 한벽원미술관에서 지난 4월 29일부터 6월 22일까지 세 달간 진행되었다. 전시는 110주년을 맞아 그 작품 세계의 핵심에 해당되는 동물그림을 집중 조명하려는 의도로 기획됐다. 월전은 조선미전 연속 4회 특선(1941), 대한민국 금관문화훈장 서훈(2001) 등 현대 한국화

화의 미의식과 표현방식을 계승, 발전시키며 자신의 작품세계를 일구어 갔다. 이는 현대 한국화 작가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한 하나의 경향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월전의 작품세계에 있어서 영모화(翎毛畵), 즉 동물그림은 중요한 장르였다. 월전은 초기였던 1930년대부터 소, 갈매기, 백로, 부엉이 등 다양한 동물 그림을 그렸다. 그의 초기 동물 그림에서는 사실성과 장식성이 두드러졌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가 그린 동물들은 단순한 사실성을 넘어 풍자적 요소를 담는 형식으로 변화했다. 가령 월전이 농약에 오염된 고기를 잘못 먹고 죽어 가는 백로를 그린 것은 주로 상서로운 의미로 그려지던 새를 사회 비판적인 것으로 바꾸어 그리면서 영모화의 경계를 확장시킨 것으로 풀이되었다. 또한 다른 화가들이 잘 다루지 않는 동물인 침팬지를 소재로 삼은 바 있는데, 월전은 이를 통해 인간의 도덕적 타락을 비판했다. 이는 작품상에서 재현적인 측면, 시각적인 측면보다 의미적인 측면과 지적인 측면을 강화한 것으로, 월전은 동물에 빗대어 인간사회의 비열함과 천박함, 온갖 부정부패가 팽배한 서글픈 세태를 통렬하게 비판하는 의도를 담아 그만의 영모화를 개척하였다.

6월의 무늬

김소선(63조소)·김미혜(78회화)·박덕실(81회화)·민수정(82회화)·김종수(93서양)

김소선, 김미혜, 박덕실, 민수정, 김종수 동문 등 5인의 '서울대미대5인의 동문전: 6월의 무늬'전이 지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파주시 아트린뮤지움에서 열렸다. 아트린뮤지움의 초대로 열린 이번 전시는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꾸준히 작품활동을 해 온 다섯 동문들이 30년의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동세대작가로서 함께 개최한 전시였다. 그들은 비록 서로의 작품경향은 다르지만 '6월의 무늬전'을 통해 서울대미대라는 공통분모를 찾아 작품 간에 공명을 일으키고자 하였다. 또한 미술과 대중의 소통을 실천하기 위해 전시기간 동안 2회의 '지역주민을 위한 미술교육' 및 '작가와의 대화' 프로그램을 마련



했다. 특히 '작가와의 대화'는 작가가 풀어내는 이야기를 통해 관람객들이 작가들의 서로 다른 삶을 엿보고 작품을 마음으로 느끼며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강경구: DENSITY 숲 강경구(73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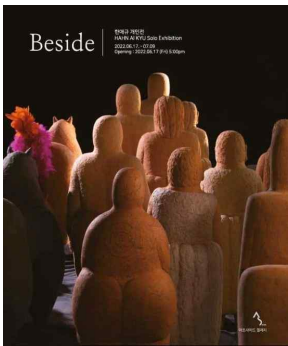
강경구 동문의 개인전 ‘강경구 : DENSITY 숲’이 대구 우순갤러리에서 6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 열린다. 강동문은 2000년 제 12회 이중섭 미술상을 수상하고 1980년대부터 20여회의 개인전을 꾸준히 열어왔다. 강동문의 고아한 작품 세계를 주도하는 것은 다채롭고 역동적인 자연 속 유기체가 거침없이 자생 성장하는 강렬한 생명의 기운이며 삶에 대한 열망이다. 그러나 그는 풀, 나무, 잉클어진 덩불, 그늘진 숲, 나는 새들, 그리고 어둡고 깊은 산길을 감각적인 기교나 치밀한 모사로 재현하는 데 관심이 없다. 오히려 이질적 요소들이 끊임없이 병렬적으로 존재하며 스스로를 조직하는 자연의 불가사의한 힘을 드러내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강동문의 작품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부여한다. 강경구의 작품 안에는 빛과 그림자, 눈부시게 밝은 곳과 미스터리한 어두움, 명백함과 애매함, 투명함과 불투명함이 교차하면서 무한한 확산성을 지닌 예술로 가는 이동의 경로에서 일종의 자유로운 연합이 형성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강동문의 ‘숲’은 ‘미지의 땅’의 발견을 암시하는 신비한 세계로 진입하는 통로라고 해석된다.



이런 의미에서 강동문의 ‘숲’은 ‘미지의 땅’의 발견을 암시하는 신비한 세계로 진입하는 통로라고 해석된다.

Beside 한애규(73응미)

한애규 동문의 ‘Beside’展이 서울시 종로구 아트사이드갤러리에서 6월 17일부터 7월 9일까지 진행된다. 한국의 테라코타작업을 선두에서 이끈 여성작가로 손꼽히는 한동문은 이번 전시에서 신작 38여 점을 선보인다. 한애규와 아트사이드 갤러리는 10년이 넘는 오랜시간 함께 걸어오며 다양한 전시를 진행했었는데 이번 전시는 지난 2018년도 개인전 ‘푸른 길’에 연속된 이야기인 동시에 그의 작품에 대한 가치관을 더욱 견고히 보여주고자 한다. 그의 푸른 그림자



시리즈는 물 위에 비친 일렁이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어딘가 쓸쓸하고 외로워 보이는 그림자는 계단, 벽, 바닥 어디든 나타나 나를 따라다니는 듯 한데 이는 언제나 우리의 곁에 있지만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에서 우리는 그의 그림자 조각을 바라보고 마치 ‘나의 그림자로 받아들이며, 그간 미처 돌보지 못했고 애써 보지 않으려고 했던 감정들은 수면 위로 떠올라 온전히 나와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김종선 개인전 김종선(74회화)

김종선 동문의 ‘고려불화 재현작품 전시회’가 지난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종로구 아리수갤러리에서 열렸다. 모교 회화과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김동문은 국내외적으로 동양화계의 거두로 활동하며 외국으로 반출된 원본 고려불화를 섬세하게 재현해왔다. 고려 불화는 세계적으로 160~170여 점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상당수의 아미타불도, 수월관음도, 지장보살도 등을 통해 당시 성행했던 불교신앙을 엿볼 수 있다. 김동문이 2010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고려불화대전을 관람할 무렵, 현존하는 고려 불화의 대부분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해외에 반출되었고 10여 점만을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태였다. 그러한 실태를 계기로 김동문은 독보적인 아름다움과 섬세함을 보여주는 고려 불화를 재현하고 전시해 많은 사람들에게 고려 불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고자 하였다. 김동문이 재현하고자 하는 고려불화들은 800~1000년이 지나 형태와 색감이 흐릿하고 손상된 부분이 많았다. 그는 2010년 겨울부터 인터넷과 청계천의 헌책방들을 다니며 자료를 찾고 수집하는 등 오랜 연구를 통해 14점의 고려 불화를 재현했다.

심현희 개인전 심현희(76회화)



심현희 동문의 개인전이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약 2주 간 서울 종로구 나무아트에서 열렸다. 심동문은 모교대학원 졸업 후 예원학교와 모교 강사 시절을 통틀어 수십년간 동안 많은 후학을 배출하였다. 심동문은 동양화를 전공하며 수묵화와 채색화에서 습득한 대담한 붓놀림을 자기만의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면서 자유분방하게 펼쳐오고 있다. 동서양의 다양한

붓은 물론 나이프까지 사용한 심동문의 화면은 시원하면서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면을 가지고 있다. 가족 시리즈와 더불어 꽃을 소재로 많은 작업을 하고 있는 심동문은 꽃이 자신에게 하나의 충만한 느낌으로 다가올 때, 즉 감정적 교류를 느낄 때 비로소 꽃을 그린다. 그만큼 심동문의 꽃은 대체로 일반 꽃 정물화와는 달리 큰 화폭에 한 두 송이가 거침없는 붓질과 나이프로 그려져 크고 화려하며 강렬하다. 예술가로서 심동문에게 꽃은 찰나를 포착해 화폭에 고정시키는 작업이다. 이번 개인전은 심동문이 포착한 찰나의 시간과 꾸미지 않고 본성을 그대로 담아내고자 하는 심동문의 작업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

All for You 선종훈(84회화졸업)

선종훈 동문의 개인전 ‘All for You’가 지난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서울 명동성당의 갤러리 1898에서 열렸다. 전시 주제는 ‘All for You-천인도에서 지게작대기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여정’이다. 선동문은 갤러리 1, 2, 3 전관에 캔버스, 드로잉, 설치작품 등 30여 점을 선보였다. 선동문은 지난 2014년 가톨릭에 귀의한 뒤 성모마리아를 특별한 방식으로 형상화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천 사람의 얼굴을 담은 ‘천인도, 1996’부터 삽자루와 지게 작대기에 세모꼴



무늬를 정성스럽게 그려 넣은 ‘안식, 2022’과 ‘지게 작대기, 2022’까지 작가의 20여 년 작품 세계를 감상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벽 하나를 가득 채운 ‘천인도’는 사람 1천 명의 얼굴을 하나에 36개씩 담은 27개의 캔버스를 이어붙인 대작이었다. 선동문은 “지금 돌아보면 세례를 받기 전 ‘천불천탑’을 모티브로 작업한 ‘천인도’부터 신앙의 이끌림이 있었다며, 삽자루와 지게 작대기는 모두 주님의 ‘일으켜 세우심’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무고개 이윤정(85동양)



이윤정 동문의 개인전 ‘스무고개’가 지난 6월 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종로구 아트비트갤러리에서 개최되었다. ‘스무고개’는 작가가 어린 시절 하던 놀이에서 착안한 제목이다. 스무고개 놀이는 한 사람이 단어를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상대방이 스무 번까지 질문을 하여 그것을 알아맞히는 수수께끼 놀이이다. 이번

전시의 제목 스무고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말 그대로 ‘스무 개의 고개’ 즉 산수 그림이기도 하고 단어 맞추기 게임인 ‘스무고개’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 동문은 레이스 끈이라는 독특한 재료를 동양화 준법과 결합하여 자신만의 산수를 표현했다. 산과 바위는 레이스 끈을 한지에 찍어 묘사하거나 실제 레이스 끈을 재봉하여 이전 작품들과의 연결선에 있다. 한지에 겹쳐 찍힌 레이스 끈의 흔적과 재봉된 레이스 끈은 평면 위에 쌓여 두께를 형성하며 부조의 형태에 가까워진다. 그들이 겹쳐지며 만들어내는 모양은 최초에 묘사하려던 바위와 산의 형태로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특유의 문양과 질감이 우연히 어우러져 간혹 현대적인 표현효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카르마 오디세이 우상호(89서양)



우상호 동문의 15번째 개인전이 지난 6월 8일부터 14일까지 대전MBC 초대로 대전MBC 사옥 1층에 있는 갤러리M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우동문이 환갑의 나이와 화업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작품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도약을 하기위한 아카이브 형식의 개인전이였다. 전시는 세상을 보는 시각의 대표적 용어인 카르마(KARMA)시리즈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이슈를 이야기하는 Crying시리즈까지 30년 동안 변화해온 변천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게 구성되었다. 이번 전시는 동물 제약회사

(주)ELTscience(대표 최형규/81수의대)가 기획하고 대전MBC(사장 김환균/81독문)의 초대로 이루어졌다. '카르마 오디세이' 전시에는 영겁의 시간이 쌓이며 서로 간의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책이라는 우동문의 생각이 담겨있다. 겹겹이 쌓인 시간의 층을 중국 유학 시절 습득한 칠화 기법을 응용해 표현했다. 칠화는 옷칠로 그림을 그려 넣고 수십 번의 칠과 연마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우동문이 옷 대신 사용한 아크릴 물감은 과거와 현대 이어주는 또 다른 소통의 매개체로서 우리를 새로운 통섭의 길로 인도했다. 작품 속 책들이 여러 층으로 빼곡히 꽂혀 있는 모습과 책이 만들어내는 기하학적 화면 분할은 차분하고 깊이 있는 색채감을 만들어냈다. 우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중앙미술학원 대학원에서 석사를 전공했다. 우동문은 다수의 단체전에도 참여했으며 이번 전시가 열네 번째 개인전이였다. 현재 한국미술협회 회원, 아트버스 카프 소속작가,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주)ELT PHARMA 사외이사로 활동 중이다.

신의 숨결, 너그러운 수정망토 서길현(91조소)



서길현 동문의 개인전 '신의 숨결, 너그러운 수정망토'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근현대미술관 담다에서 지난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열렸다. 서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파리1대학 팡테옹 소르본느에서 조형예술학박사과정을 졸업했다. 서동문은 프랑스에서 오랜 기간 미술수업을 하고 추상화를 그렸음에도 작품에서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정서를 잃지 않은 작가다. 서동문이 원색의 아

크릴 물감을 즐겨 사용하면서 그의 작품에서는 단청의 이미지와 같은 한국적인 색채의 미학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한편 이번 전시 '신성한 숨결'은 서동문이 파리1대학에서 발표한 박사논문 '세계 안의 순간과 유동태-이미지와 움직임에 관한 연구'에서 다룬 '이미지와 움직임' 주제 또한 떠올리게 했다. 서동문의 작품은 추상화에 속하지만 작품을 그리는 방식에 있어 우연성을 거부하고 의도적인 시도와 일관된 방식을 유지하는데, 그에게 작업이란 전위와 변용을 통해 이미지의 스펙트럼을 펼쳐감으로써 세상의 수수께끼와 의문에 다가가는 순수한 사색의 순간이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의 제목 '신의 숨결 : 너그러운 수정망토'에서 엿볼 수 있듯 이번 전시와 작품은 서동문이 관조적이고 사색적인 태도로 만들어낸 무심하고 경이로운 수정망토가 펼치는 마술의 총체였다.

올해의 작가전 장우진(98조소)



장우진 동문의 개인전이 지난 5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울산문화예술회관 상설 전시장에서 열렸다. 본 전시는 울산문화예술회관이 우수한 지역작가를 발굴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올해의 작가전' 일환으로, 장동문은 모교 서양화과 학사와 미술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했으며, 갤러리 도스(서울), 트레저힐 크로스

갤러리(타이페이, 대만), 523쿤스트독(부산), 장생포고래로131 작은미술관(울산)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장동문은 2020년 울산지역 레지던스 공간에서 입주작가로 활동하며 서서히 지역에 이름을 알렸다. 지난 2년여 동안 그는 울산의 지역적 특징을 담은 사진을 통해 디지털 불이기(콜라주) 작품들을 주로 선보여 왔다. 주요 작품으로 '야음동 풍경', '두 마을', '올드 앤 뉴' 등을 발표해온 장동문은 울산의 지역개발과 경제발전이라는 국가적 대업, 사람들의 욕망 앞에서 개인의 삶이 밀려나는 상황들은 과거와 현재에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장동문은 울산의 변화된 도심 풍경을 담은 사진 작품 15점을 통해 인간이 구축한 도심과 자연이 어우러져 서로 이질감이 드는 낯선 감정을 전달했다. 장동문은 현재 머물고 있는 울산을 배경으로 사방을 에워싸고 있는 거대한 공단의 풍경을 작품 속에 담아내었다. 인근 풍경을 촬영한 뒤 그 풍경들을 재구성하고 그 위에 전에는 없던 새로운 풍경을 기록하면서 공간의 역사와 지나간 시간을 묘사한다. 풍경 속에 역사를 담은 장동문의 이번 전시는 지역만의 풍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한국이 거쳐 온 근대화의 역사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이면을 보여주었다.

The Colours 김성국(04서양)



김동문의 개인전 'The Colours'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의 '갤러리 마노'에서 지난 5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열렸다. 갤러리 마노에서 열린 전시에는 김동문의 'The Trees' 시리즈 신작을 포함, 총 19점이 관람객을 맞았다. 김동문의 'The Trees' 연작은 연둣빛 색조로 나무 형상이 반복되는 숲 그림에 마치 문양 패턴처럼 백합이나 들국화, 튜립 등 알록달록한 꽃들이 매칭돼 있어 대자연을 마주 대한 것처럼 눈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들게 한다. 그런데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살펴보면 평면에 재현된 자연의 모

습이 아니라 실재하는 숲을 대한 듯 입체적으로 느껴져 묘한 감흥을 맛보게 된다. 그림 속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겹겹이, 규칙성을 가지고 화면 전면에 가득 자리하고 있다. 패턴처럼 보이는 형상들은 '반복이라는 추상의 언어'를 떠올리게도 한다. 미술평론가 조은정은 그의 작품에 대해 "묘사에 있어 회화적 기법의 다양성을 익힌 몇 안 되는 작가 중 하나"라며 적절히 화면에 광택을 주어 실재감을 높이게 하거나 결코 콜라주 기법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입체가 평면에 고정된 사진으로 느끼게 하는 독창적인 브리콜리르(bricoleur, '손재주꾼'을 일컫는 프랑스어) 기법을 지녔다"고 설명했다. 김성국 동문은 서울예고와 모교 서양화과를 거쳐 영국왕립예술학교(RCA) 서양화과 대학원에서 수학했다. 모교 졸업전에서는 총장상을 수상했고, 2018년 RCA 졸업작품전에서는 '개기일식(the Total Solar Eclipse)'이라는 작품이 최고가인 9000파운드에 팔리면서 텔레그래프지에 실리기도 했다.